

인종평등선교주일 설교자료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 되기



인종평등선교주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인종평등선교주일

설교 자료

건강한 관계 안에 하나 되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물질이나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서 인간성을 발견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식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식일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인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문 곁에 날마다 누워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사치스러운 식사를 보고, 듣고, 그 냄새를 맡습니다. 다만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위로란 거리의 개들이 그의 아픈 부위를 핥아주는 것뿐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보이면서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분으로만 그를 보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설교 자료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 되기

인종평등선교주일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도 혹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비극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합니까? 어떠한 불의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 우리의 망가진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충분한 분노를 더는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까?

이 비유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무시하지만, 개들은 나사로를 위로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울부짖지만, 나사로에게는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적 엘리트로서 자신과 아브라함을 연결하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적 위치에서 부르짖으면서, “나도 당신의 후손입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전히 어찌나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지, 아브라함더러 나사로를 시켜서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를 위로하게 하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뻔뻔함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오만함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자가 가진 특권 의식은 그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의 부재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구렁텅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여도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가난하다는, 가진 것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기를 거절한 것이 바로 그렇게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돕지 않을수록,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그의 다섯 명의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삶의 길을 바꾸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인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또다시 자기 직계 가족이라는 경계에 갇히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와 성경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저는 이 비유 속에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설교 자료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 되기

인종평등선교주일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은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나사로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 그리고 다섯 형제 중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에 해당할까요?

저는 우리가 부자의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과 추악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 소망과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저 책임감을 가지거나 자기만족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인류라는 틀에서 연결된 것을 인식하고, 상호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삶과 목회, 또 예언자적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는 “버밍엄 교도소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호관계의 그물망에 엮여서,

하나의 운명이란 옷감에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분명히 보이지만 가려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나쳐 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형제자매 된 이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가져올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또한 은사의 상호 공유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나 의견, 또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대문 옆의 나사로처럼 외롭고

배고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부자와 같이 행동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일, 가족, 친구들에게만 몰두한 채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애써 못 본 척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헌금을 통해 부자의 가족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에는 크기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인들과 연합합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형제자매 된 이들이 살아가게 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